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24】

2012. 10. 4

말레이시아 투자환경과 우리기업의 투자 유망 분야

목 차

- I. 검토배경.....1
- II. 말레이시아 부문별 투자환경 3
- III. 우리기업의 투자 유망 분야..... 7

국별조사실

작성: 조사역 서은주 (3779-5705)
seounchu@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투자 또한 2010년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한국이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음. 말레이시아는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이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성공적인 말레이시아 투자를 위해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투자 유망 분야를 제시해 보고자 함.

I. 검토 배경

□ 2011년 FDI 유입규모 역대 최고 기록

- 2011년 말레이시아에 대한 FDI 유입액은 1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은 15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에는 전년 대비 507% 상승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데 이어 2011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됨.
-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견조한 경제성장,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및 양호한 인프라에 기인함. 특히,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가 자연 재해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기업들은 비교적 안전한 말레이시아로 투자를 늘리고 있음.

<표 1> 대 말레이시아 FDI 유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86	72	15	91	120

자료: UNCTAD.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5위 투자대상국

-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액은 2006년 51백만 달러에서 2011년 1.6억 달러로 213%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변동성은 확대되는 추세임.



<표 2>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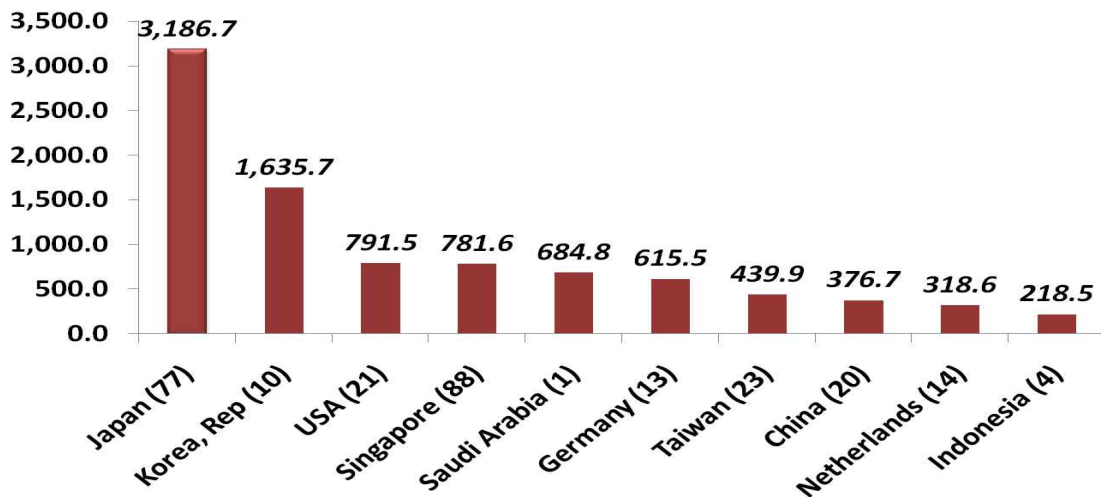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1	158	327	111	1,552	15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실행 기준).

- 특히, 2010년 한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300% 증가한 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제 2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함.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및 가스 부문의 대규모 투자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2010년 국가별 대 말레이시아 투자액(신고금액 기준)



자료: MIDA.

- 2011년의 직접투자액은 전년 보다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향후 투자액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는 2011년 말 기준(누계)으로 106건, 16억 9,683만 달러로 제15위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나라 총 투자 누계액(1,420건, 32억 9,683만 달러)의 0.99%(금액 기준)를 차지함.

II. 말레이시아의 부문별 투자환경

1. 산업단지 및 인프라

□ 산업단지

- **(공업단지)** 말레이시아에는 경제개발공단(SEDCs), 지역개발청(RDAs) 등 정부기관이 개발한 200여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최근에는 정부기관이 개발하는 공단 이외도 민간 개발업체들의 산업 공단 개발이 두드러짐.
- **(자유산업지역)** 수출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자유산업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은 최소한의 통관절차, 원료, 부품, 기계류와 장비의 수입시 면세가 적용되며 완제품 수출시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유산업지역의 입주를 위해서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거나, 원료 및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자유산업지역은 Pasir Gudang, Tanjung Pelepas, Batu Berendam I, Batu Berendam II, Tanjung Kling, Telok Panglima Garang, Pulau Indah (PKFZ), Sungai Way I, Sungai Way II, Ulu Kelang, Jelapang II, Kinta, Bayan Lepas I,II, III, IV, Seberang Perai, Sama Jaya 이며 총 18개 임.

□ 인프라

- **(전력공급)** 테나가 나쇼날(TNB), 사바 전력공사(SESAB),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ESOCO) 3개의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 전기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지역 및 전력 사용에 따라 다른 요



금체계가 적용됨(4.73~13.15센트/kwh).

- **(용수공급)** 말레이시아의 수도공급은 원활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임.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상수도서비스사업법 등 수도서비스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요금은 주에 따라 차등 부과됨.
- **(해상운송)**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만은 클랑항, 페낭항 등 7곳이 있으며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물을 하역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음. 7개의 항만 중 2곳이 세계 20대 컨테이너항에 포함됨.
- **(항공운송)**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천만 명의 여객 처리능력과 120만 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춘. 동 공항은 2020년까지 연간 여객 6,000만명, 화물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인센티브

□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제조업 부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이며 동 혜택의 수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됨.
- **(개척자 자격)** 개척자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됨.
- **(투자세 공제자격)** 투자세 공제자격을 받은 회사는 최초 투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 등)에 대해 최고 6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하이테크 기업, 전략적 프로젝트, 중소기업, 자동차 산업의 핵심고부가가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항목별 인센티브 내용

구 분	내 용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부여 - 최초 투자시부터 5년동안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 공제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과세 소득 50만 링깃(약 1.8천만원)까지 20% 법인 세율 적용
산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부여 - 최초 투자시부터 5년 동안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 ~100% 공제 혜택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부여 - 최초 투자시부터 5년 동안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 공제 혜택
수출증가액에 대한 인센티브	- 수출증가액의 10% 세금 공제 (수출품 30%이상 부가가치 창출시) - 수출증가액의 15% 세금 공제 (수출품 5%이상 부가가치 창출시)

자료: MIDA.

3. 조세제도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판매세

-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며 2009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소득 세율은 25%가 적용됨. 개인소득세의 경우 각종 인적 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에 대해 0~26%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일반적인 판매세율은 10% 이나 과세대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기계는 면세대상임. 단, 건축자재는 5%, 주류는 20%, 담배류는 25%가 과세됨.

□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

- 말레이시아의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본으로 함. 대부분의 상품은 3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을 제외(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등)하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음.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수출관세는 정부세입 확보, 환경 보호 및 국내 적정 공급물량 유지를 위해 대체로 소비재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원유 20%, 원목 5.4%, 임산물 3.1%, 생선 2.5%, 동물사료 2.5%, 비철금속 3.2%, 커피 2.3%, 야자유 15%임.

4. 기타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디자인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과 직접회로 설계권 등으로 구성됨.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로 체결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서명함.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말레이시아는 2012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 노동시장

- 말레이시아의 노동인구는 1,130만명(2010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이 협소해



많은 기업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근로자들의 해이한 근무태도, 잦은 이직, 책임감 부족한 경영관리의 어려움이 되고 있음.

- 현지인들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대부분 생산업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맡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채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III. 우리기업의 투자 유망 분야

1. 말레이시아의 비교우위

□ 팜오일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말레이시아는 토지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부한 천연 고무와 팜오일의 주요 수출국가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및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와 자원 개발이 활발한 상태임.
- 원유 및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이며, 주석은 세계에서 5번째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팜오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 생산국으로, 최근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각광받으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표 4> 말레이시아 원유, 천연가스, 주석 보유 현황

구 분	단 위	매 장 량	비 고
원유	백만 배럴	5,900	0.4%(세계 비중)
천연가스	1조 입방미터	2.4	1.2%(세계 비중)
주석	메트릭톤	250,000	5.2%(세계 비중)

자료: BP, USGS.

□ 양호한 기업경영 여건과 국가신용등급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는 매년 9월 말 세계 183개국에 대해 기



업경영여건(Doing Business)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1년 평가에서 말레이시아는 18위로 상위권으로 분류됨. 이는 2010년 23위에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기업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IFC가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해 평가분야(10개) 중에서 신용 획득(1위), 투자자 보호(4위)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 데에 기인함.

<표 5> 기업경영여건의 세부항목별 국가 순위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종합	18	8	129	17	136
사업개시	50	24	155	78	158
사업허가	113	26	71	14	102
재산등록	59	11	161	9	54
전력확보	59	71	99	28	117
신용획득	1	8	126	67	126
투자자 보호	4	79	46	13	133
조세납부	41	38	131	100	136
대외무역	29	4	39	17	51
계약실행	31	2	156	24	112
사업폐쇄	47	13	146	51	163

자료: IFC, Doing Business.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2년 세계경쟁력평가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는 정부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국가별 비교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정부의 효율성	17위	22위	25위	23위	37위
사업수행의 효율성	14위	26위	33위	19위	31위
인프라구축	27위	20위	55위	47위	57위

자료: 2012년 세계경쟁력평가 보고서.



-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걸프만 협력회의(GCC) 회원국¹⁾들과 대등한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S&P A-, Moody's A3, Fitch A로 신용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정치적 안정성 및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되고 있음.

□ 지리적 이점과 이슬람권에서의 높은 위상으로 인접국으로 수출 용이

-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인구가 2억명이 넘는 인도네시아를 배후시장으로 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여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진출하기 쉬운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음.
-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회원국이며, 이슬람 정상회의의 전 의장국으로 이슬람 국가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이슬람 문화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확대로 중동국가들이 이슬람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말레이시아는 세계시장에서 이슬람식 금융의 주도국으로 성장하였음.

2. 투자 유망 분야

□ 한류를 이용한 식품사업

- 2002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드라마 '대장금'의 방영으로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최근 슈퍼주니어 등 한국가수를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콘텐츠를 수입하였으나, 한국 대중문화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인한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1) 걸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임.



- 또한, 말레이시아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웰빙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한국음식이 웰빙음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말레이시아에 100여개의 한국식당 및 마트가 있어 현지인이 손쉽게 한국음식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한국의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할랄 인증'인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하며, 소, 닭 등 고기도 이슬람 율법에 맞게 도살되어야 함.
 - 무슬림은 식품을 선택할 때 할랄 인증을 중요시 하므로 60%가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 없이 식품을 판매할때는 판매 시장이 무척 좁아짐.
- 할랄 제품의 주소비자인 무슬림 인구는 16억 명으로 추정되며 할랄 식품 시장은 7백조원이 넘음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은 세계 이슬람 식품시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할랄 인증은 이슬람 국가에서 두루 사용되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모두 검증받아야 하며 제품마다 인증이 필요함. 현지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할랄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T산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일등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VISION 2020'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²⁾제도를 도입함.
 -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산업의 GDP 기여도는 8.4%(2000년 6.7%)이며, 2008년 기준 정보통신산업 관련 종사자는 108,255명임.

2) MSC는 정보통신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첨단기술 유치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ICT 허브로 만든다는 프로젝트임. 주요사업은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스마트 스쿨(Smart School), 원격 의료(Telemedicine), 국경없는 마케팅(Borderless Marketing Centre), 전세계 제조의 중심지(Worldwide Manufacturing Hub), 연구개발 클러스터(R&D Cluster), 다목적카드(National Multipurpose Card) 등이 있음.



- 정부가 의욕적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 지원 인프라 결핍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뛰어난 전문가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투자기회는 커질 것으로 보임.

<표 7> ICT 발전 지수 (IDI, ICT Development Index)

구 분	순 위	점 수
스웨덴	1	7.85
한국	3	7.68
말레이시아	56	3.96

자료: ITU.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자정부 개념이 적용된 신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 (Putrajaya)를 조성하는 등 고객 중심의 대규모 전자정부를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도 전자정부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전자정부 관련 산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UN 회원국 190여개국 중 1위 기록

-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부가 발주함으로써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현지 유력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기술이전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교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화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의 프로젝트 참여를 선호함.

- 전자정부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 장비, 멀티미디어 콘텐츠, 네트워크 보안 제품, e-러닝 솔루션, 모바일 TV, 디지털 홈 등과 관련한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1년 7월 12개 국가 주력 경제프로그램(National Key Economic Program, ETP)을 발표함. 이 중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에너지 효율제고, 태양광발전 용량 증대, 수력 발전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기존 1%에서 2015년 5.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가격보조제를 실시하고, 투자세 공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력발전소 건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
 - 수력발전소 건립 예정: ULU HELAI(372MW) 발전소, TERENGGANU (212MW) 발전소, BAKUM(2400WM) 발전소
- 또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품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미국 수출시 중국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덤핑 규제를 받지 않는 이점이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서은주(5705)
seoeunchu@koreaexim.go.kr